

EDU-02 한눈에 보기

거래 도구의 구조와 권리를 이해하고, 계좌와 결제를 안전하게 관리한다.

왜 배우나요?

계좌와 결제수단은 돈을 담는 곳이 아니라 생활을 움직이는 약속입니다

필수개념

- 계좌: 금융회사가 내 돈의 입출금과 잔액을 기록하는 계약입니다.
- 잔액: 화면에 남아 있다고 표시된 돈입니다.
- 즉시결제와 후불: 지금 계좌에서 빠지는 결제와 나중에 갚는 결제의 차이입니다.
- 자동이체: 정해진 날에 반복해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한 약정입니다.
- 예금보호: 금융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 보호 대상 예금을 법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
- 계좌는 돈을 담은 물건이 아니라 입금·출금과 잔액을 기록하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입니다.
- 통장에 보이는 잔액과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예약이체·미결제금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.
- 현금·체크카드·신용카드·간편결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과 책임이 서로 다릅니다.
- 송금 전에는 받는 사람·금액을 확인하고, 잘못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.

핵심 4문장

- 돈은 가치의 기준·교환·저장의 기능을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의 구매력이 줄 수 있다.
- 계좌는 돈을 보관하고 거래를 기록하는 그릇이다. 통장 이름보다 명의자, 금융회사, 상품 종류, 출금 조건을 먼저 본다.
-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에서 바로 빠지고, 신용카드와 후불결제는 미래 소득으로 갚는다.
- 오픈뱅킹과 간편결제는 편리하지만 연결 범위와 인증수단을 넓힌다. 쓰지 않는 연결은 끊는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
- 오픈뱅킹·마이데이터는 연결 범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: 쓰지 않는 서비스는 연결을 해제하고, 계좌 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계좌·자동이체를 정기 점검합니다.
- 다크패턴은 선택을 재촉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듭니다: 결제 직후 확인메일과 해지화면을 저장하고, 달력에 무료기간 종료 전 점검일을 적습니다.

판단 5단계

- 목적: 오늘 지출인지, 반복 지출인지, 해외 지출인지 적는다.
- 시점: 돈이 빠지는 날과 청구일을 확인한다.
- 총비용: 가격뿐 아니라 연회비·환전·송금·연체 비용을 합친다.

- 보호: 예금보호 대상 여부와 부정사용·오입금 처리 절차를 확인한다.
- 기록: 영수증, 약정 화면, 해지 완료 화면을 남긴다.

도움 요청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다음 점검 2026-11-20 · 2026년 8월 제1판